



# 대안가정

통권17호 (2007년 봄·계간) <http://www.daeanhome.org>



2. 스케치 / 창립5주년 후원의 밤 『행복나눔』
4. 고맙습니다 / 『행복나눔』 결산보고
5. 만남 / '환사마' 장인 환을 만나다
6. 대안가정 일기(8가정 발췌)
10. 상담원 수첩
11. 그림일기
12. 방문기 / 대안가정운동본부 인터뷰를 마치고
13. 집중 / 아동 발달지원계좌(CDA)를 아시나요?
14. 상담현황
15.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16. 후원안내, 대안가정알리미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편/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7. 6. 8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복·나·눔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복·나·눔』이 2007년 4월 23일 진석타워웨딩뷔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백여명의 후원인들이 함께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물품을 기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물품을 구매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식사비를 화·악 깎아주시는 김영학 사장님, 음향을 살피주시는 웨딩피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5주년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이석규 팀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아름답고 행복한 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

오후 2시,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후원단체(기업) 소개배너도 걸고, 대안가정운동 홍보물도 보기 좋게 전시하고...



2

드디어 하나 둘 손님들이 도착하고, 기부함 속 애정과 격려도 함께 쌓여갑니다.



3

스탠드, 찻기름, 양주, 선글라스~ 기증받은 다양한 경매물품이 구경하고 사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4

3년째 행사를 도와주고 계신, 방송인 장인환님의 사회로 『행복나눔』을 시작합니다.



5

가득 찬 객석 보이세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6



김정화님과 은혜진양의 바이올린 2중주.

7



벨레스텔레 여성중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9



위탁아동의 시각에서 영  
제작된 영  
상 '동지를 날  
아오르는  
어린 새'

8



십시일반 내어놓은 물품과 지역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경매로 판매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연  
과 추억이 담긴 귀한 것들이라 더욱 감사했습니다.

10



대안가정 가족들과 함께  
함께 '발'을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말 행복이  
가득한 아름  
다운 밤이었  
습니다.

## 대구 · 경북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고맙습니다!

2006년 음악회 때, 대안가정 사랑의  
주치의 협약을 맺은 [대구·경북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행·복·나·눔  
후원금(2백만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170여 명의 의사선생님들이 주치의로  
대안가정을 믿어(?)주고 계시니,  
우리 아이들 건강 하나만큼은  
걱정 없겠죠?? 고맙습니다!





# 행복나눔 결산보고

## [결산 내역]

(단위: 원)

수 입		지 출	
행사후원금	15,370,000	인쇄비(리플렛, 초대권)	620,000
경매수입금	5,167,000	현수막, 홍보판넬	200,000
		경매준비비(표구 등)	610,000
		영상물 제작경비	172,800
		식사비	1,000,000
		출연진 보상비	1,100,000
		코사지 및 꽃다발	100,000
		사진촬영	100,000
		배송 및 우편료	129,010
		출장 및 교통비	112,000
		회의비	276,420
		문구 및 잡비	113,740
계	20,537,000	계	4,533,970
※ 순수익금 / 16,003,030			

## [후원 내역]

금 액	후원인 및 후원처
2백만원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
1백만원	대백선교문화재단, 영진전문대학, 윤장학, 전경수, 정현수
50만원	(주)월성
30만원	TCN대구방송(주), TCN대구케이블방송(주), 대경상조, 태광공업사, 우병걸, 이귀호, 이연생
23만원	달봉회
20만원	고광산업, 매넛회, 불교사회복지회, 이재수, 이정화,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영남협회, 참가사(권일섭 외)
10만원	국민은행 수성지점,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대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근호 회계사무소, 평화인권교육모임, 김규원, 김정화, 김하수, 김사열, 김상대, 박동준, 박영민, 배성우, 백승대, 오창섭, 이동률, 이상배, 이왕욱, 이재용, 이정로, 이태원, 정진영, 최경호
5만원	대구MBC미디어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고석, 고은영, 김석진, 김영철, 김영환, 박만근, 박소영, 박시하, 손지아, 안이정선, 위희탁, 윤순영, 이경희, 이상욱, 이상춘, 이승찬, 전형수, 정미옥, 익명
4만원	은재식
3만원	대구DPI, 대구KYC,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장애인지역공동체, 강병준(백승태), 권옥빈, 권천달, 김광미, 김구, 김희섭, 박송훈, 송창섭, 심보영, 이국진, 임민희 외, 정재석, 황윤호
2만원	권덕환, 김민정, 백진희, 정계순
1만원	류재현, 오현주

## [후원물품 경매현황]

작품 or 제품 / 작가	기증자	구매자
바람이 일다(연작) / 임현락	임현락	이재수
태백산맥(3점) / 정비파	민예총	김동익, 손분득, 이춘희
꽃 / 김동기	김동기	이민수
나무와 나 / 김동기	김동기	이병희
사람 집 / 김영환	김영환	함영삼
대전엑스포하회탈기념액자	이수형	김영학
일출(사진) / 박진우	이수형	이춘희
Kenzia by Ku 썬글라스(6점)	함영삼	김명희, 김정례, 안연화, 안효자, 엄재임
다기세트(2점) / 홍태덕	이순임	이관석, 장종호
조니워커 블루라벨	이병희	이담
죽엽청주		박만근
와인	권오걸	박만근
와인 & 와인잔	권오걸	백강균
봉로녹차		이왕욱
탁상용스탠드(2점)		배하준, 위희탁
가정용소화기(3점)	이재용	배성우, 이병희, 이태원
참기름세트(2점)		정미옥, 진석워딩홀
차잔세트(2점)		이경희
비즈발(25점)	김영학	김명희, 이경숙, 이왕욱, 허복욱
리스(3점)		김희진, 최윤희건
새를 품은 여인 / 김동기	김동기	
가족(다종이공예품) / 김미영	정영숙	
2004 아테네올림픽기념우표		
수채화(사진) / 이지은	권대훈	
다기세트 / 홍태덕	이순임	
심자수액자	이왕욱	
인도네시아전통탈	이민수	
커피메이커	손분득	
버버리 남성스킨	문우경	

## [행사수익금 사용내역]

(단위: 원)

사 용 내 역	금 액
부채상환	10,300,000
사무실 임대료(10개월)	2,000,000
운영경비	3,703,030
계	16,003,030



## ‘환사마’ 장인환을 만나다



정리 : 김명희 사무국장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복·나·눔』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날 밤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남게 된 데는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방송인 장인환씨다.

『행·복·나·눔』의 사회를 맡아준 장인환씨를 만나 보았다.

◀ 『행·복·나·눔』 진행중인 장인환씨

2005년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시민음악회」를 앞두고 몇 다리 건너 입수한 휴대폰 번호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짜고짜 나 이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달라고 했었는데, 그가 별 망설임 없이 흔쾌히 그러마고 했을 땐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웠다.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5년 음악회는 그의 유쾌하고 매끄러운 진행에 힘입어 더 빛이 났고, 2006년 음악회 역시 1천여명의 참가자에게 흥겹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 『행·복·나·눔』의 진행을 부탁하면서는 몹시 미안했다. 뷔페식당이긴 하지만 분위기상 집중이 어려운 식당인데다 경매까지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늦게 도착한 분들은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돌아다니고, 홀 출입구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무대로 모아주었고, 2시간 동안 함께 웃으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에게 3년간 대안가정운동본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서로 낯설지 않고, 가족모임처럼 친근했다.”고 답했다.

대학시절 교내 방송국에서 매주 공개방송을 진행해온 그는 1993년부터 본격적인 방송활동에 들어갔다. 공개방송에서 대중을 휘어잡는 유쾌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가 성격과 직업 간의 충돌로 적응에 10년이 걸렸다니... 사실 그는 대중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섬세하고 내향적인 성향을 지녔다. 외골수라 한 가지 관심분야에 깊이 빠져들 뿐 아니라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요즘 그는 사진에 빠져있다. 따로 시간을 내 출사를 갈 형편이 아니라 생활주변의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언젠가 전시회도 가질 생각이라고 한다. 사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부친의 권유로 사회복지학과를 갔지만 기실 그가 하고 싶었던 건 그림이었다. 그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진다.

3년 전부터 나는 그의 팬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매년 4월 그의 생일을 기념하여 모이는데 참가자 전원이 아줌마들이다. 그에게 노래를 배우는 노래교실 수강생들인데 “우리 쌤! 장쌤!” 하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그는 ‘환사마’다. 그리고 내게도 우리 대안가정 가족에게도 그는 ‘환사마’다.

유쾌한 카리스마 뒤에 언뜻언뜻 보이는 수줍은 미소와 섬세한 배려로 인해 더욱 신뢰가 가는 ‘환사마’ 장인환. 대안가정운동의 최일선에 그가 함께 서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 유신이네

### 2007. 3. 20 / 유신이네 집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작은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유신이에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유신이는 또래에 비해 체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작은집에 온 이후로 잘 먹어서 그런지 살도 오르고 키도 좀 자랐고, 얼굴도 뽀아니 귀티가 납니다. “유신이 너무 잘 생겼는데...” 하자 저도 동의를 하네요. 홈페이지에 대한 가정 일기를 보여주면서 유신이가 말썽부리면 여기다가 다 고자질 할 거라고 하자 난감해합니다. 유신아! 작은엄마랑 작은아빠랑 형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거라.

### 2007. 3. 22 / 유신이가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유신이가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도 함께 면접상담을 하고, 양

육자 검사지도 작성하셨습니다. 유신이는 그날 검사량이 많아 검사지를 집에 가져가서까지 했다고 하네요. 검사받으러 갈때는 오후 수업을 빠지고 가는 마음에 기분 좋았는데 아마 그날 후회막급이었을 겁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앞으로 유신이가 건강하고 밝게 잘 성장해주길 바라셨습니다.

### 2007. 4. 30 / 4월29일 금요일

내일부터 유신이가 이틀간 중간고사를 친다. 우리 집에 와서는 처음 치는 시험이라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 유신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하여 수학여행에 입고 갈 청바지와 T셔츠를 사주기로 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쇼핑을 갔는데 유신이가 체격이 적어서 옷 사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여러곳을 돌아다니다 긴청바지와 7부청바지, 후드티를 샀다. 옷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트를 돌아다니다 시식도 하고 여행에 필요한 김밥재료 과자, 음료수를 사고 하루를 끝마쳤다. 앞으로 유신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티 없이 커주기를 바랄뿐이다.



## 하연이네

### 2007. 3. 5 / 하연공주~ 대안가정 입성^^

오늘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감지한 것인지 내내 어리둥절한 표정에 시종 불안해하던 하연이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가 출발하자 곧 췌근췌근 잠이 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하연이에게 너무 힘들면 어쩌나 했는데, 편안하게 잠든 하연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무사히 대안가정에 도착! 현관에 서 대안가정 엄마와 첫 대면한 우리 하연이. 덩싹 안긴 것까진 좋았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은거야~ 눈썹이 실룩실룩~ 결국은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대안가정 엄마가 등에 업고 집안을 두어바퀴 돌고나니 쿨쿨 잠들었지만요. 하연아, 이제 눈썹 그만 실룩거리구~ 이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렴~!!



### 2007. 3. 12 / 미소

하연이의 웃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소리지않게 미소를 보내는가 하면, 어느순간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보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압튼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욕하고 우유한병 똑딱! 취침중입니다. 집안에 항상 웃음소리가 흘러 넘~ 행복합니다.

### 2007. 3. 30 / 조금 컸지요

조금 컸지요? 몸무게도 늘었고... 앉아서도 잘 놀아요. 이가 하나 빠죽 올라왔고, 그바람에 침은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이가 나려고해서 장난감은 물고 있기도 하고, 압튼 예쁜 모습입니다.



**2007. 3. 13 / 대장이 된 하늘이**

어제 하늘이 어린이 집에 보냈습니다.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면서... 점심때 데려올까... 전화해볼까... 그래도 한번 겪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조바심으로 4시까지 기다렸답니다. 4시가 되자마자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 왈, “처음에 울더니, 그 다음엔 온 어린이 집을 휘젓고 다녔답니다.” 모든 장난감은 자기 것으로 접수 끝. ㅎㅎㅎ

그동안 교회에 형,누나들 속에서 단련된 실력(?)을 뽐냈으리라 아무튼 이런 저런 일로 또 하루가 갔습니다. 이사하는 일에 애써주신 사무실 언니들 수고하

셨습니다. 경북 대안가정마을 모두모두 벌써부터 그럽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나중에 또 만나요~

**2007. 4. 12 / 엄마! 나 잘했ぜ?**

요즘 하늘이는 또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의 끊임진 노력(차라리 강요) 끝에 쉬를 제법 가린답니다. 자기도 신이 났는지, 요즘 제법 표현력이 늘어갑니다. 어린이집에 돈 보태준 효과가 하나 둘 나타납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아침 거르고 온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아침을 주는데 하늘이는 또 거뜬히 해 치운다나? 이미 자기반을 접수를 끝내고 밖의 놀이터에 행들까지 접수하려고 틈만 본다나? 요즘은 세상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 온답니다. 벽방산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하늘이는 갈 때는 신나서 갔지만 올 때는 쿨쿨입니다. 엄마 앞에서 쿨쿨, 아빠 앞에서 쿨쿨쿨, 엄마 한숨에 잡자고, 아빠 등에선 땀난다. ㅋㅋㅋ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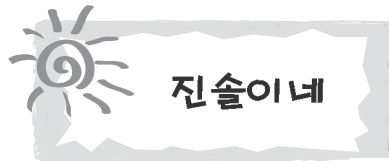
**2007. 2. 25 / 진솔이의 첫번째 생일**

진솔이 생일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비록 몇 개월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 주어서 너무 고맙네요. 펜과 실, 돈, 과일 중에서 실을 잡았어요. 우린 당연히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앞니가 여섯개나 났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답니다. 고구마, 감자, 당근, 쌀을 넣고 죽을 쑤어주면 아주 잘 먹지요. 혼자서도 잘 서 있고, 열두 발자욱까지 걸었답니다. 아마 봄에는 걸어서 산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진솔아! 우리는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



**2007. 3. 21 / 진솔이가 걸어요**

진솔이 요즘 걷기 연습하느라 열심히입니다. 거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요. 걸어오다가 방향을 바꿀 줄도 압니다. 저도 신기한지 자꾸 일어나 견습니다. 똥똥한 몸매에 균형을 잡아 걷는 모습이 보고 또 봐도 신기하고 귀엽습니다. 휴대폰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



기도 하고 빛으로 머리를 빗기도 하고 오후들 공부할 때 연필로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서랍은 모두 다 열어봐야 합니다. 열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눈 깜짝 할 사이에 다 꺼내서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귀여우니 어찌겠습니까? 밥은 또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만든 이유식을 어른 밥그릇 하나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하고 먹어보니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은데... 셀러리도 우적우적 잘 씹어 먹습니다. 아빠 왈, “진솔아 너 도대체 못먹는게 뭐니?” 빨리 날씨가 따뜻해져서 유모차 태우고 밖에 산책 가고 싶습니다. 예쁜 꽃과 향긋한 봄내음, 부드러운 바람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진솔이의 토포토포한 눈에 보여 주고 싶습니다.



**다혜네**

**2007. 3. 7 / 궁금해 정말~**

외할머니께서 요양차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어제 저녁에 짐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을 열어보니 글썄... 다혜가 방긋 웃으며 서 있지 않았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린이집을 마치고 엄마가 할머니댁에 있을거란 말을 아침에 듣고는 곧장 온거였어요. 궁금한 것은 어떻게 혼자서 찾아왔을까 하는건데... 우리집에서 할머니댁까지 다혜는 두 번정도 차를 타고 와 본 것이 전부인지라... 하여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랍니다. 다혜는 엄마에게 '혼자서 할머니 댁에 오면 다음엔 엄마한테 혼난대'는 말을 들어야 했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답니다^^



**2007. 3. 13 / 언어전달**

'썹썹하게 어린이집에 갑니다' "엄마, 성생님이 이렇게 언어전달 하래써~" 그러고는 내가 언어전달 내용을 받아적으니 읽지도 못하는 글을 손가락 짚어가며 한자한자 읽고는 흐뭇한 표정이다. 어제는 놀다가 탁자에 부딪혀 잇몸에서 피가 났다. 이가 상했나 걱정스러워 살펴보니 다행히 괜찮아보였다. "오빠 어렸을 때는 이를 부딪혔는데 이가 까맣게 죽었어" 나는 흘러가는 말을 했다. 오늘 아침. "엄마. 근데 오빠가 애기 때 이를 부딪혀서 죽었찌? 그래서 수술해써?" "응~ 그제 아니고 다시 새이가 나왔어" 아마도 다혜는 자신의 이가 까맣게 되어버리거나 앓을까 걱정을 한 것 같다^^ 다시 하얀 이가 나왔다는 말에 안심하는 빛이 역력했다!

**2007. 4. 24 / 언니의 일기**

2007년 4월 23일 날씨:맑음

제목: 대안가정모임

오늘 대안가정 모임이 있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대안가정 모임에 갔다. 가니 초콜릿 선물을 주셨다. 우와, 맛있대! 맛있겠지? 올해는 '아쉽다, 아쉽다' 라고 생각했다. 매월 마다 대안가정 모임이 있었으면^^

**2007. 3. 13 / 빨래 왕!입니다요**

중학교 다니는 딸, 아들이 교복을 입음과 동시에 일거리도 늘었다. 셔츠 빨고 다리는 일! 청소는 그럭저럭해도 빨래는 소질과 취미를 동시에 상실해 버린지라 매일 나오는 흰 셔츠 빠는 일이 나에겐 고역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셔츠가 늘었다. 셋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올해부터 원복을 입는다. 공포의 흰 셔츠와 함께.. 작년에 입던 체육복은 일주일일에 두번 나머지는 원복을 입혀보내라 하지만 처음 입는 원복에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원복을 입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만한 아들놈 와이셔츠부터 요~만한 셋별이 와이셔츠까지 매일매일 세 개를 북북 빨아댄다. 올해가 지나면 나는 분명 빨래왕이 되어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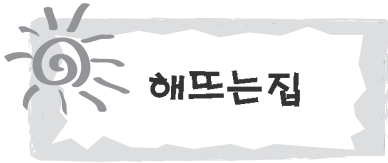
**2007. 3. 31 / 데모^^**

셋별이가 파업 중이다. 시위방법은 아침 굶기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을



**셋별이네**

먹자니 나름대로는 고역인 것 같다. 하지만 아침식탁이 아니고서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가 어려워 아침은 모두같이 먹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우리집의 오랜 습관이다. 잘 따라하던 셋별이가 어제부터 배가 안고프다며 아침 먹기를 거부한다. 속도 모르는 큰아빠는 연신 빨리 오라며 한 손가락만이라도 먹으라고 어르고 속을 뻥히 아는 큰엄마는 셋별이가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봐도 속수무책이다. 물론 언니오빠는 끼득데며 연신 맛있다고 밥을 먹는다. 이들 아침을 굶었는데 얼굴이 반쪽이다. 물론 큰아빠 혼자 생각이다. 7살배기의 파업을 철회하기 위해 좋아하는 반찬만 먹게 놔둬야하나? 아니면 강경하게, 모질게 견제야하나?



**2007. 3. 26 / 혜운이 아빠 만나고 왔어요**

어제 혜운이가 아빠를 만났다. 가창에 있는 허브힐즈에 갔단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 그 곳을 차도 없는 아빠랑 버스와 택시를 바꿔타며 가느라 아빠가 애를 먹은 것 같다. 하루종일 줄서다 볼 일 다 봤다면서 아빠는 피곤해 보이는 반면 혜운이는 뽀뽀하니 즐거운 표정이다. 함께 하지 못하는 딸을 만날 때마다 아빠는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다. 아빠를 만날때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와 열심히 사랑을 하는 혜운이의 모습이 언니들에게 준 거슬리는 모양이다. 2주일만에 집에 온 유현이가 그거 보기 싫다면서 혜운이 집에 오기 직전에 가버렸다. 올해부터는 명절에 혜운이랑 아빠랑 같이 보내기로 했다. 큰아버지 집에도 가고 다른 친척들도 만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2007. 4. 19 / 오민이 이 치료하다**

오늘 오민이가 치아치료를 하였습니다. 저번주에는 3교시 동안 3번을 속을 게워내면서 결국에 이치료를 하였고, 오늘은 2번 속을 게워내고 이치료를 하였습니다. (오민이랑 오복이는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킬때에 속을 게워 내는거 아시죠??\*) 험박과 회유~ 이 치료를 잘 하면 밥도 많이 주고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했고, 만약에 못하면, 밥도 안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그리고 교실에 가서 벌을 설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 하고 고향 치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이치료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1시간정도 만에 이치료를 하였습니다. 저번에는 2시간 정도 걸렸으니, 많이 나아졌죠?? 다음 주 목요일 또 치료를 할 건데. 아마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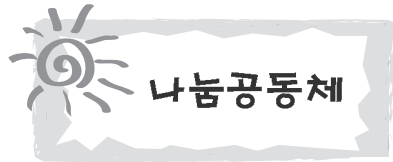
**2007. 4. 26 / 대호의 집착**

대호는 책에 대해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00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을 좋아합니다. 서재를 2층으로 옮긴

아서 권했는데,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하신다. 그나저나 언제쯤 혜운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아빠를 맞이할 수 있을런지...

**2007. 4. 2 / 드디어 기저귀 땀다**

쉬이는 벌써 가렸지만 응가는 기저귀를 찬 채로 한쪽 구석에 엉겨주춤하게 서서 불일을 보곤 했었는데 며칠전부터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고 있다. 매일 외가로 출퇴근을 시켜가며 키우다보니 일관성있게 배변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다. 아기용 변기커버에 몇번 억지로 앉혀봤지만 “기저귀에 응가 할거야!” 하면 울어대는 통에 번번히 내려놓곤 했었는데 어떤 일인지 며칠전부터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응가한다며 자진해서 들어간다. 기저귀 대신 쪼그만 팬티를 입혀 두는데 궁뎅이가 얼마나 밀랑밀랑 이쁘지... 잘 때도 쉬이가 마려우면 일어나서 불일을 잘 봐서 이전 기저귀와는 완전히 결별한 듯 하다. 시원스럽게 응가를 하고 나면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갈려면 기저귀 차면 안돼. 화장실 가서 응가 해야 어린이집 갈 수 있어.” 한다. 수시로 어린이집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주입했었는데 그게 먹힌 걸까.



이후 대호와의 숨바꼭질은 매일 반복이 됩니다. 내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 책을 가져갑니다. 나는 다시 뺏고... 대호는 다시 틈을 노리고... 급기야 그 두꺼운 책을 학교까지 가져갑니다. 배낭보다 책이 더 큰데 말입니다. 지금도 1800페이지 되는 ‘전국장로명부’ 라는 책을 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이 헤어진 줄 알지만 사실은 대호가 하도 넘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땐 대호가 고맙기도 하네요. 독서광 왕복사!! ㅋㅋ

**2007. 5. 6 / 상은 이제 그만!**

일주일 걸려 상 타오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장을 걸 곳이 없네요(?)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이제 더 이상 상은 받지마!!!



정민경 상담팀장

## 내가 이래서 이 일을 하지

며칠 전 오후,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명희 선생님이나 민경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정민경입니다. 어떤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저 은주(가명)엄마예요.”

“어머나!! 너무 반갑네요. 목소리가 아주 건강해보이세요. 아이들은 잘 지내죠?”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한참이나 계속 되었다.

은주엄마는 2004년 여름,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아이와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과 시댁과의 갈등, 아이들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 엄마에게는 쉬이 필요했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했기에 어렵게 아이들을 위탁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댁과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큰아이가 아픈데다 엄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였다. 결국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며 위탁의뢰를 취소했다. 한편으로 엄마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헤어지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후 3년이 지나 연락이 닿은 엄마는 밝은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상담원들에게 많은 위안을 받고 너무 고마웠는데, 오늘은 마음먹고 전화를 했다면 연신 아이들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둘이 중학생, 초등학교가 됐어요. 큰애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공부도 곧 잘해요. 작은애는 장래희망에 사회복지사라고 써서 담임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구체적이라며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벌써 아이들이 그렇게나 컸어요? 모두 건강하다니 정말 반갑네요. 언제라도 좋으니 아이들과 함께 꼭 놀러오세요.”

엄마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도움 받은만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안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후원신청을 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극구 관찮다하시는 어머니의 그 진심이 너무 감사해서 결국(?) 후원신청을 받아들였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동안이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날을 기억하며 글을 쓰고 있지만, '내가 이래서 이 일을 하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기분좋은 책임감이 더해짐을 느낀다. 대안가정과 인연이 되어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의 친진했던 모습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하루다.

# 그림일기



## 행복 선물 배달

올해는 하나은행의 지원으로 대안가정과 아이들 선물을 넉넉히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5월엔 가정의 달 가족선물과 어린이날 선물이 한꺼번에 우루루 쏟아졌습니다. 각 집마다 선물을 고르고 배달하느라 손길은 분주했지만, 드리는 마음이 더 풍성하고 기뻐합니다!



## 영남신학대 아동 청소년 복지 아카데미 특강

5월 1일, 영남신학대 교회사회복지연구소가 주관한 "2007 아동 청소년 복지 아카데미"에서 김명희 사무국장이 "대안가정"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교재는 [대안가정 길잡이]를 사용했고, 최근 제작한 영상 "동지를 날아오르는 어린 새"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경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 대안가정 가족이 늘었어요! - 하연, 유신

3월 5일은 하연이(7월, 여)가 20일은 유신이(15세, 남)가 대안가정 가족이 된 날입니다. 하연이는 동욱·가은 남매와 은별, 아란이를 양육했던 대안가정 가족이 되었고, 유신이는 작은 아버지택에서 친인척위탁됩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인터뷰를 마치고

경북대 최지현, 김수경, 김구슬

‘성과 사회’라는 수업에서 ‘대안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우리 일행은 지난 5월 11일,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즐거운 인터뷰를 하였다. 초행길에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였지만, 상담원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따뜻이 맞아주셨다.

우선 서로 간단히 소개를 한 뒤, 대안가정을 위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실제 대안가정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사실 우리 일행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지 못해서 죄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잘 설명해 주셨다.

처음에 대안가정이라는 개념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들은 대안가정이라는 것을 입양가족, 위탁가족, 미혼모가족, 동성애가족, 한부모가족, 공동체가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말하는 대안가정은 그 중에서도 입양가족, 위탁가족을 말하는 것이었고 특히 위탁가정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대안가정의 개념과 이 기관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인터뷰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분들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들을 위탁하기를 원하는 일반가정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그 가정들이 올바르게 행복한 위탁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연결만을 해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전 상담과 아동과 부모의 철저한 교육, 아동을 위탁하는 기간에도 끊임없는 조언을 제공하고 나중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신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인터뷰를 마친 후, 이런 위탁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위탁이 입양처럼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그동안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가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다는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하며, 위탁가정이 사회에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위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날, 우연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위탁가정과 친부모의 친권 사이의 문제점에 관해 다룬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어제 방문한 대안가정운동본부와 김명희 사무국장님을 화면으로 보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놀라웠다. 또한 위탁가정과 친부모 친권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사회적으로도 위탁가정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경북대 사회학과 ‘성과 사회’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3명이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다녀갔습니다. 장차 대안가정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어여쁜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은 참 즐거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는 캠퍼스에서 가정위탁홍보캠페인도 펼쳤다니요. 고맙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아시나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취업·창업·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고자, 이들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펀드로 적립해주게 됩니다. 만 17세 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월 3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을 포함, 18년간 적금할 경우 2100여 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 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900여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 본 제도는, 시설아동 1만5600명, 가정위탁아동 1만1900명, 소년소녀가정아동 2200명, 공동생활가정아동 600명, 장애인시설아동 2800명 등 모두 3만3000명이 올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는 현재 16명의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0일 현재, 유현, 진, 병산, 정민이를 제외한 12명의 아동은 후원자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 이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기금을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미래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자람도우미가 되어주세요.

자람도우미는 아동을 지정하여,  
매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립할 저축액을  
후원하는 후원자입니다.

후원방법 : 지정 아동에게 월 1만원 이상 후원  
신청문의 : 대안가정운동본부 ☎ 053-628-2592



홈페이지 [www.daeanhme.org](http://www.daeanhme.org) 대안가정 일기마을에서  
아이들의 좌충우돌, 알콩달콩 대안가정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현황 ( 2007년 1/4분기 )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내용 월	아동 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월	2	19	1	16	4	1	-	1	44	1	-	1		
2월	18	7	6	15	12	-	2	4	64	2	3	5		
3월	7	22	9	38	16	-	5	-	97	1	-	2		
분기계	27	48	16	69	32	1	7	5	205	4	3	8		

###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 월	전화상담	웬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1월	33	1	5	3	2	44
2월	55	4	4	-	1	64
3월	86	1	6	4	-	97
분기계	174	6	15	7	3	205

## ■ 본부소식

### · '지역사회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대안가정 양성 프로젝트 실시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안가정운동 홍보와 대안가정 부모 확보, 양성을 위한 기획 사업을 전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기관방문



2007년 3월 30일,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복지소풍-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기관들을 두루 방문 중이라고 하네요. 갓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이 많이 왔었는데, 대안가정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 · 영남신학대학 특강

2007년 5월 1일, 영남신학대 교회사회복지연구소의 "2007 아동 청소년 복지아카데미"의 한 꼭지로 대안가정운동에 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학생들의 열의에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 · 경북대 사회학과 '성과 사회' 조모임 기관방문

2007년 5월 11일, 경북대 사회학과 '성과 사회'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국문학과' 학생 3명이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네요.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 유신아(15세, 남) - 대안가정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빠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유신이는 작은아버지네 가족과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과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유신이도 대안가정 가족들도 힘내세요!

### · 혜윤아(9세, 여) - 아빠와 만났어요

혜윤이가 3월과 5월 두 번, 친아빠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내구경도 하고 허브힐즈도 다녀왔대요. 이제 아빠의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하룻밤정도 아빠집에서 자고 오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외부행사

###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설명회

2007년 3월 1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설명회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참가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시행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 · 해피빈 대구 · 경북지역 특강

2007년 4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해피빈 대구 · 경북지역특강에 정민경 상담팀장이 참가했습니다. 온라인 모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자리였습니다.

### · 제 2회 가정위탁상담원 교육

2007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회 가정위탁상담원 교육(주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장효점 상담원이 참가했습니다. 좋은 교육도 받고, 함께한 전국 17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들의 지혜도 배우는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신한은행 : 100-018-271549

### ☆ 자동이체 안내

• 대구은행은 사무국으로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 그 외 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 또는 지점방문)

###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대안가정이 궁금하세요? 불러만 주세요!

## 찾아가는 『대안가정 알리미』

대안가정?? 좋은일 같긴 한데, 막상 내가 도울 건 없는 것 같으시다구요?

대안가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

대안가정운동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한명도 좋고, 수 백명도 좋습니다.

계모임, 동창회, 동아리 등 각종 소모임 설명회에서

학교, 교회, 기업 등 대규모 강연까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 알리미를 부르시면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를 드립니다.

\* 문의 : ☎ 053-628-2592

